

민주 대선후보 확정...광주시·전남도 현안사업 대선공약 총력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오찬 AI·모빌리티·국립대 신설 등 강조...사업 추진 탄력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로 선정되는 등 조기 대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광주·전남 핵심 현안 사업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한 밀착업이 한창이다.

광주시·전남도 광역 지자체 장들은 호남순회 경선을 치르기 위해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 부를 만나 지역 현안 공약에 대한 대선 공약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호남 역차별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지역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7일 지역 정국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전남도당 관계자들과 정진욱(광주 동남 갑)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지역 핵심현안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원내대표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의 대표자로 당내 2인자 또는 원내 사령탑으로 불리며 당내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통일 시켜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다. 뿐만 아니라 국회 내 각 상임위 배치와 운영·정부 예산안 검토·인사청문회 등을 맡고, 쟁점법안 처리와 조율을 맡는다. 또 대선에서는 당의 주요 대선 공약에 대한 조율도 담당한다.

이날 가벼운 오찬 자리였지만, 강 시장과 김 지사는 박 원내대표에게 광주·전남·북 메가시티 조성과 지역 핵심 현안의 현실화를 읍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을 통한 먹거리 확보로 위기 극복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에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 인공지능(AI)과 미래 이동수단(Mobility) 산업 생태계 조성의 양날개를 달아 달라는 것이다.

타 지자체보다 앞서있는 AI와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광주에 만들어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광주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혁신적인 발전 주도를 위한 계획으로 '초거대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구축', 'AI 데이터뱅크 구축 및 메가 샌드박스 지정', 'AI 실증밸리(AI 2단계 사업) 조성', '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양자·휴머노이드 테크산업 기반 구축'을 과제로 삼고 있다.

또 우리나라 제2의 자동차 생산도시인 광주에서 드론, 수직 이착륙 이동수단 등의 연구·개발과 부품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연구시설(R&D) 산업단지 구축, AI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및 자율형 물류·교통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자동차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김 지사 역시 전남 국립대 신설을 포함한 20개 핵심과제와 지역발전과제 등이 차기 정권에서 꼭 이뤄지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으로, 국립대 신설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다. 또 전남 산업의 '기동'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불황에 따른 대전환 프로젝트도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긴요한 과제임을 알렸다.

산업기반이 열악한 전남에서 대내외적인 위기에 놓인 두 주력 산업의 운명이 곧 전남 산업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 해남 일원에 조성 중인 기업도시 '솔라시드' 내에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를 구축하는 과제도 제도 규제 특례 확대 및 세제 혜택 강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또 조선·해양 AI 초격차 자율제조 특구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에너지 신도시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도 지역민과 산업계가 염원하는 과제다.

이밖에 전남은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K-김'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단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광융합 극한에너지 국가 첨단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문화사업 메가 'K-디즈니' 조성, K-노벨문학 메카 조성 등도 지역 발전을 위해 차기 정부 안에 최소한의 사업 발판 마련이라도 필요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26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등이 바라보는 가운데 시신이 안치된 목관이 운구되고 있다.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미사 엄수...세계인 애도 속 영면

26일 성 베드로 광장서 열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2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5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됐다. 장례 미사는 교황의 시신이 안치된 목관이 성 베드로 성전에서 야외 제단으로 운구되는 것으로 시작됐다.

'주여, 영원한 안식을 내리소서'의 입당송과 기도, 성경 강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추기경단장으로 미사를 주례한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이 강론을 했다. 장례 미사는 레 추기경이 주례를 맡았으며 전 세계에서 온 추기경을 비롯해 주교, 사제들

이 공동으로 집전했다.

기존에는 장례 미사가 끝나면 사이프러스와 아연·나뭇나무 등 세 겹으로 된 삼중관 입관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평소 소박한 삶을 살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11월 장례 예식을 개정해 삼중관 대신 아연으로 내부를 덧댄 목관 하나만 쓰게 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부분 전임 교황이 묻힌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 묘지 대신 로마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을 안식처로 택했다. 이곳은 생전에 '어머니의 품' 같은 곳으로 생각할 만큼 애정이 깊었던 성당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장례 미사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130여개국 대표단 등이 바티칸을 찾아 애도했다.

교황청은 장례미사에 20만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23일부터 진행된 일반 조문에는 약 25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새 후임자를 뽑는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는 오는 5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바이오진흥원 조직 개편...바이오의약본부 등 신설

4본부 15실·센터로

전남바이오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경영 효율성과 미래 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27일 전남바이오진흥원에 따르면 기존 6센터 2실에서, 바이오의약본부와 그린바이오본부, 해양바이오본부, 경영기획본부를 신설해 4본부 15실·센터로 개편한다.

진흥원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능력을 높여 전남을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또 조직이 확대되면서 인사적체를 해소해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부서 간 협력과 책임 경영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진흥원은 최근 급작한 국제사업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대내외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 최근 2년간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지정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도 공공기관평가 최우수 3관왕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진흥원은 ▲백신·의약 분야 기술력 강화 ▲천연물·해양자원 활용 연구 확대 ▲그린바이오 산업화 지원을 통해 바이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 바이오기업과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해 대규모 수출 성과를 올리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진흥원은 조직 개편을 계기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전남지역 바이오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연구개발 체계를 대폭 강화해 기존 6개 센터의 역량을 크게 높이고, 기술창업 지원도 한층 확대해 바이오산업 발전을 선도하겠다"며 "전남 22개 시군 전체로 바이오산업을 확장해, 전남이 명실상부한 바이오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진흥원이 든든한 기반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은 임직원 설명회에 이어 전남도, 산일동상자원부, 관련 시·군 등 1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관광·숙박·외식업계, '광주방문의 해' 공동 대응

'2025 광주방문의 해' 성공과 체제된 지역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광주시가 지역 관광·숙박·외식업계와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는 최근 시청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사)관광관광협회와 '2025 광주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업계는 '5·18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 '광주 2025현대세계(장예인)양공선수권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의 개최를 앞두고 민관이 함께 관광객들에게 숙박·여행·쇼핑 등 선진 서비스를 마련할 방침이다. 매력적인 관광도시인 광주를 알리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5년 3월 24일 총사원동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며, 청산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본 회사 해산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채권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내 이의나 채권신고가 없을 경우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유한회사 휴먼인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138번길 31-20, 신창파크빌 204호(신창동) 이사 김세연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5년 3월 24일 총사원동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며, 청산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본 회사 해산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채권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내 이의나 채권신고가 없을 경우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유한회사 휴먼시스템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138번길 31-20, 신창파크빌 204호(신창동) 이사 김세연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5. 4. 24. 주주총회에 같은하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5. 6. 30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4월 28일
정도타인씨 주식회사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울촌산단4로 68-4
청산인 유명철

73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

북구	• 통 266-1920	• 문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222-8171
	• 양 신 571-7658	• 오 지 265-7601
	• 용 통 433-1503	• 우 신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명 222-9054
	• 중 정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동 신 673-6836	• 송 화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용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문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